

경복궁 종소리

장영실의 측우기

세종의 어명

“영? 저게 뭐지?”

“보아하니 높은 분들 같은데 이런 작은 마을엔 무슨 일이지?”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 사이로 말을 탄 관복 입은 사람이 병사들을 이끌고 지나갔다. 실

룩거리는 말의 엉덩이에 기름기가 흘렀다.

“어? 영실이네로 가고 있잖아. 혹시 영실이가 도망이라도 ……”

“아이구, 방정맞기는.”

사람들은 행렬의 뒤를 따라갔다.

영실이네 사립문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천인 장영실은 어서 나와 어명을 받으라.”

‘어명이라니.’

놀라 뛰쳐나온 영실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장영실은 곧 대궐로 입궐하라는 어명이오.”

사립문 밖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먹이를



기다리는 새의 새끼들처럼 입을 짝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실의 주위에는 잠시 동안 조용한 적막감이 흘렀다.

“만세!”

순간 어딘가에서 적막감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상감 마마 만세!”

“자, 차비를 서두르시오.”

어명을 받들기 위해 영실은 준비를 서둘렀다.

관복을 입던 영실은 잠시 옷 입는 것을 멈추고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벗은 옷을 말없이 개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말거라. 난 너무 기뻐 눈물이 나올 것 같다.”

어머니의 곁을 떠나 마을 고개를 넘는 영실은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밟혀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지나가는 길가에 소나무가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한양에 도착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영실은 임금님을 뵈 수 있었다. 처음 보는 궁중의 모습, 그리고 사 람들.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인을 쫓아 들어가는 영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임금의 거처인 듯한 큰 건물에 들어서자 영실은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지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답답했다.

“그대가 장영실이란 자인가?”

처음 듣는 임금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다.

“그리하옵니다, 마마.”

영실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개미 목소리만한 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왜 그리 떠는 것이오. 자, 고개를 들어 보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 영실 앞에는 인자한 모습의 임금님이 앉아 있었다.

“야, 임금님은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 이빨도 이렇게 삐죽하다고.”

자신 있게 임금님의 모습을 떠들어대던 마을 녀석이 떠올랐다.

“모든 조정 대신은 들으시오. 이 순간부터 장영실을 노비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겠소. 더불어 장영실을 종5품 상의원 별좌에 임명하오. 장영실의 노비 문서를 소각하고 그에 따른 제반의 준비들을 서두르시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후에 ‘성왕’ 이라고 불리는 세종대왕의 과학에 대

한 남다른 관심은 천민 출신 장영실을 관직에 등용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영실은 그의 능력을 꽃피우게 된 것이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세종은 손을 내밀어 장영실을 가까운 옆자리에 앉혔다.

“그대의 총명함은 이미 동래 현감으로부터 들었소. 이곳 생활이 낯설어 견디기 힘들겠지만, 후에 그대의 힘이 필요한 때가 꼭 올 것이오.”

그날부터 장영실의 상의원 별좌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상의원 별좌란 임금님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고 관리하는 직책으로 두터운 신망이 있지 않으면 언지 못하는 관직이었다.

“저 사람이 임금님께서 직접 어명으로 임명한 장영실이라고 하더구먼.”

“우습게 보면 안돼. 꽤 똑똑하더라고. 눈속임했던 몇몇 관리가 쫓겨났는데, 그게 저 장영실이 밝혀 낸 거래.”

“하기야, 그 정도니 임금님께서 직접 불러들이신 거겠지.”

장영실을 둘러싼 궁중 나인들과 관리들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 그는 웃음거리나 시기의 대상이 아니었다. 모두들 성은(임금의 은혜)을 입은 장영실을 부러워했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외지원팀 팀장
왕연중記

발·특2005.10